나의 오래된 친구

올여름에 나는 태백엘 갔다 왔다. 지금으로부터 이십년 전 스치듯 잠깐 알았던 사람으로부터 메일편지를 받았던 것이 한 달 전 쯤. 그한테서 메일이 온 것도, 그가 태백에 살고 있다는 것도 내게는 참으로 놀랍고 반갑기만 한 일이었다. 당장에는 시간이 나지 않으니 한 달 뒤에 가겠다는 답장을 보내 놓고 나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이 많았다.

때는 83년 겨울, 나는 그때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광주 바닥을 휩쓸고 다니는 일단의 '폭도'들과 광주 충장로 뒷골목, 황금동 일대를 쏘다니고 있었다. 오라는 데 없으면 갈 데라도 있어야 하건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기는 '폭도'들도, 나도 마찬가지였다. '폭도'들은 서로를, 앞에 성씨를 붙여서 박폭, 김폭, 하고 불렀는데 그들, 박폭, 김폭들과 일 없이 광주 일원을 휩쓸고 다니다가 또 일 없이 무등산에도 올라갔다가, 정말로 일 없이 시외버스 타고 완도, 진도까지 갔다가 오기도 했다. 그렇게 일 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어디서 떴다(시위), 하면 거기로 몰려가 신나게 짱돌을 던지고, 그러다 끼니때가 되면, 황금동에 즐비한 영양센터에 가서 기름 둥둥 뜬 선지국물에 막걸리 잔술로 배를 채웠다.

큰형님이 80년 5월에 사형수였던 그

그때 그 어름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태백의 그였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그의 형님을 알았다. 그의 큰형님은 80년 5월에 사형수였다. 사형수 아들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셨는데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탈 때마다 이녁 사형수 아들 살려내라고, 외치곤 했다. 80년 5월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건만, 우리의 민중들은 먹고 살기에 치여 그 날, 그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잊어갔다. 아니, 잊은 척 했다.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였다. 그래서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다들 모른 척 하느냐고 버스 안에서, 시장바닥에서 악을 쓰고 발을 구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악 쓰고 발을 굴러서 드디어 그 사형수 아들이 감옥 문을 나서게 되었다.

감옥을 나온 그 형님이 생계의 일환으로 황금동 골목에 '청포도'란 술집 겸 식당을 열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 없이 황금동 바닥을 어슬렁거리다가 밤이면 영양센터 희미한 백열전구 아래로나 모여들던 김폭, 박폭들이 드디어 갈 데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가 그를 본건 그러니까, 재수생이었던 그가 형님이 문을 연 그 가게에서 잠시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였던 것이다.

폭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따금 김폭, 박폭에 이폭, 강폭, 조폭들까지 엉켜 활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들이야말로 대 양씨가문의 후예들이었던지라, 활극이 한번씩 펼쳐지면 누군가 피를 보는 일이 있고서야 멈추는 일이 종종, 혹은 가끔 있기도 했는데, 그런 날이면 활극의 뒷마무리를 말없이 하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기괴할 정도로 조용히. 그의 너무도 조용한 활극 뒷설거지를 바라보던 폭도들도 묘한 감동과 회한에 젖어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이녁들 얼굴들을 훔쳐냈던 것이다.

이따금 그가, 깨진 술병이며, 엎어진 탁자를 일으

켜 세우다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아니,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도 없고 울어도 속울음밖에 울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가 폭도들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쌍시옷자 욕설까지 뱉어내며 울었던 날이 있었다.

활극의 뒷마무리를 말 없이 하던 그

그날도 예외 없이 출구 없는 청춘들(아, 그러고 보니 그 폭도들, 그 때 스무 살 이쪽저쪽의 아이들이었던 것을)의 대책 없는 활극이 한바탕 벌어지고 난 뒤끝이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생의 어느 한 시기를 가장 참혹하게 보내야 했던 청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렇듯 활극이라고 밖에는 표현 못할 난투극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난투극의 뒤 끝에 그가, 우리의 말 없는 재수생이 포효와 같은 울음을 토해 냈던 것이다.

"아아아아아"

정작 활극의 주인공들은 지금 방금 무슨 일이 났느냐 하는 표정으로 포효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아아아, 이 썅, 이 빌어먹을, 이 개 같은.... 아아아아."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의 손은 피 묻은 병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으니.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야, 눈 온다."

눈이, 함박눈이 청포도 앞 남루한 황금동 뒷골목에 소리 없이 내리고 있던 밤이었다.

태백을 가기 위해 춘천에서 원주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태백 행 기차를 탔다. 나로서는 처음 타보는 태백선 기차다. 태백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치악산 산마루를 힘겹게 올라챈 기차는 말로만 듣던 강원도 산골의 탄광지대를 빠짐없이 지나쳤다. 추전, 고한, 사북을 지날 때, 내 뒷자리에 앉은 노인은, 전직 광부였던 노인은 옆자리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곳에서의 지난 삶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때, 광주를 떠난 그는 그 후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지긋지긋한 광주를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 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원 입대한 해군(육군 가면 전투경찰로 차출될까봐)에서 군을 마친 후 결혼도 하고 여러 직업을 거친 후 지금은 강원랜드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집안 내력도 있거니와 그 또한 대학 시절을 평탄하게 보내지는 않았다는 사전 정보가 있었던지라 그가 강원랜드에서 일한다는 게 의외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쑥스럽게, 강원랜드에 있다고 말했을 때, 어디에 있든 열심히 돈 버세요, 했다. 태백역에 마중 나온 그를 본 순간, 웃음부터 나왔다. 그도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여름 뙤약볕이 쏟아지는 태백역 앞 광장에서 한참을 웃었다. 웃다가 문득 그가 말했다.

"늘 그래요. 안 맞는 옷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문득 외로워지기도 하고."

강원랜드에서 일하는게 불편하다는 그

이제는 마흔 살 장년이 된 그가, 두 아이의 아버지요, 한 가정의 가장인 그가, 강원랜드에서 일을 해 돈을 버는 것이 어쩐지 불편하고 누군가한테 미안하다며 태백역 광장에서 쓸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던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오래된 친구는 그리고 나의 마흔 살들은 거기서 그렇게들 웃고 있는가, 거기서 그렇게들 어정쩡하게 서서 울고 있는가. 돈 벌어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하면서조차도 무엇을 그리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그리 쓸쓸해 하는가. 무엇이 그대들을 그리도 불편하게 하는가.

뙤약볕 내리쬐는 태백역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디 그늘을 찾을 생각도 못한 채로 한참 동안을 서 있었다.

공선옥
1963년 전남 곡성 출생
1991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단편 〈씨앗불〉로 작품 활동 시작. 제13회 신동엽창작기금 수여. 작품으로는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살〉 〈시절들〉 〈피어라 수선화〉 〈내 생의 알리바이〉 〈멋진 한 세상〉 〈붉은 포대기〉 〈공선옥, 마흔에 길을 나서다〉 등이 있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경제와 더불어 정치민주화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이룩한 한국민의 당당한 발자취를.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한국의 저력, 한민족의 비전을
이야기 할 때마다 소중한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요.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생활속에서 참모습을 드러내는 곳
뜨거운 열정이 더불어 사는 삶의 원동력으로 되살아 나는 곳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는 바로 그 곳에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사람